

4학년 8반의

개성있는

시화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8반

차례

4학년 8반의 개성있는 시화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8반

벗꽃 • 강메아리

나의 봄 • 공여울

은행잎 안녕히 • 김서연

점 속에 내가 있다 • 김주영

여름 • 김혜빈

오리 • 나소울

김밥 • 나예송

꽃밭 • 민준희

벗꽃 • 박서연

몽당 연필도 주소가 있다 • 박시환

눈사람 생일 • 박지민

파레트 • 박지우

강아지풀 꽃 • 박채린

강아지풀 • 박하준

백화점 • 서연우

강아지풀 • 신윤서

공포의 받아쓰기 • 유주호

종이비행기 • 이산

꽃잎 • 이아영

밥 먹을 때 생각나는 것 • 이우준

무지개 • 조현승

강아지풀 • 한정우

파레트 • 함상휘

개학 첫날 • 홍민혁

버갓 스갓

강메아리

하얀 갓 앞 봄 바람
에 살랑살랑 춤을
추다 살포시 내려
앉아 하얀 구름
그갓어요. 분홍
갓 앞 봄 바람에
사뿐사뿐 춤을 추다
살포시 내려앉아
분홍 나비 그갓어요.



나의 봄

네는 나의 봄 공여왕
꽃 피기 전에도
꽃 감추어도 나의 봄
울망 졸망 사계절
나의 등례에 피는 꿈
꿈속에서도 꿈꾸는 나의 봄

사계절



은행잎, 안녕히 [4면]

앞마당 은행나무에 은행잎들
따듯한 봄날
같이 돌아왔다.

바람에 같이 흔들리고
찬비도 같이 맞았다.



따가운 햇볕 아래
동그란 열매 함께 빛으며
천천히 물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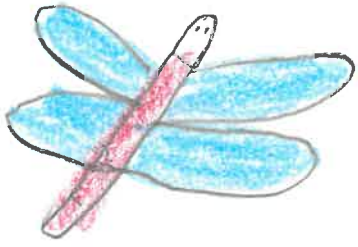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바람 부는 가을날
홀홀
같이 날아갔다.



세계 곳곳에 내가 있다.
아시아 땅에서
뽕족 나온
우리 나라
거기 에
점 하나 찍으면
우리 마을
점 속에 우리 집
점 속에 우리 식구
점 속에 내가 있다



김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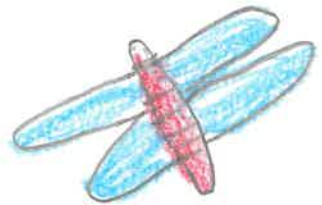
여름

김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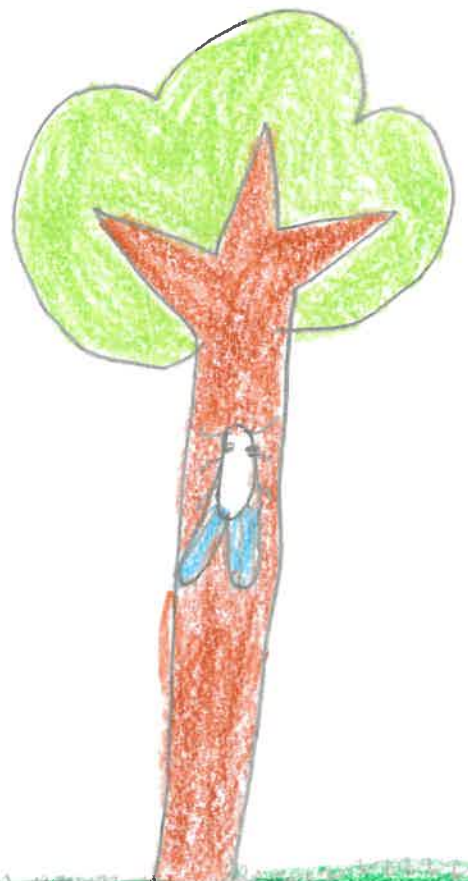
따스한 햇빛이 나를 반겨준다
창문너머로 그림자가 반겨주는 여름

매미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잠자리들이 위잉위잉
벌레들이 꿀벌꿀벌
내 다리위로 올라오려고한다

밤이 되면 쌀쌀해진다
벌레들도 잠잠해진다



< 오리 >

글 나소율
그림 나소율

퐁퐁 엄마 오리

언뭇에 퐁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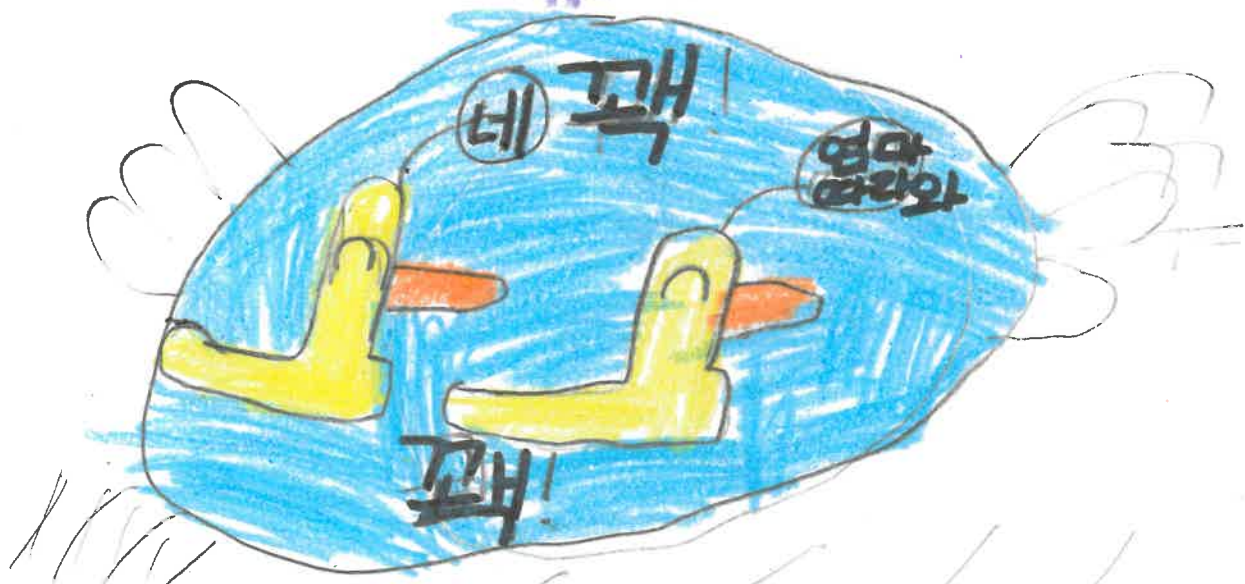
퐁퐁 아기 오리

엄마 따라 퐁퐁!

똥똥 엄마 오리

엄마 따라 똥똥!

잘도 간다



김밥

나예송

김밥은 맛있다.
빨간햄 위 노랑단무지
그위에 초록시금치.

무엇이 들어가도 맛있는 김밥인데...
하지만 김밥은 참뜻 깊은 음식이다.

소풍가는날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싸주신 김밥
김밥7에 아들이나 아버지께서 손님을 생각하며 싸주신 김밥

다터진 김밥도 맛있다.
나를 생각하며 싸주신 사람의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꽃 밥

민준희

벗나 무 아래서
도시락 연다

송송송 하늘에 맵힌
연분홍 꽃잎

바람 따라 소름 소름 소름
내리 는 꽃 비

기쁘 밤
도시락
회였 다



벚꽃

박서연

하얀 꽃잎
봄 바람에
살랑살랑 춤추다
살포시 내려앉아
하얀 구름
그랬어요

분홍 꽃잎
봄 바람에
수줍게 춤추다
살포시 내려앉아
분홍 나뭇
그랬어요



몽당

박시환

원필도
주소가

아시아 땅에서  있디-

뽕족 나우
우리나라

거기에
집하나 찍으면
우리 마을

점속에 우리 집

점속에 우리 식구

점속에

내가 있디.



점속에 내가 있다



눈사람 생일

박지민

하얀 눈이 펑펑
밤 사이 내렸어요

아빠와
데굴데굴
눈사람을 만들어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생일이 같은 눈사람이
이 세상에 세상에
많이도 태어나요





파라레트

-박지우-



기분이 우울하다면
회색빛 한 조각을
살며시 꺼내 들어봐

밝은 햇살에
마음까지 화해된다면
당연히
안쪽 달록 홍천연색이지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나의 마음을 표현해봐



제목 : 강아지 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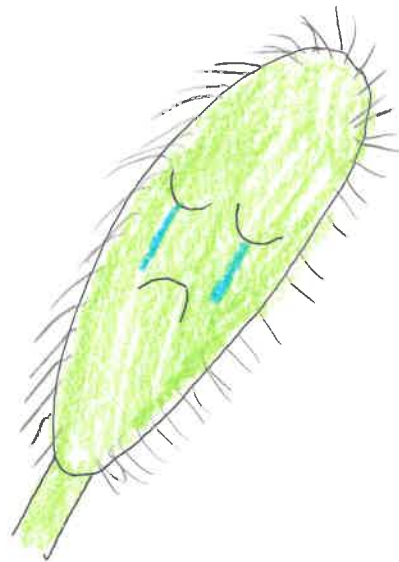
박채린

나 강아지 꼬리처럼 복순복순
귀여운 강아지 풀꽃 고개
풀 속 이고 있다.

고개 숙이지마,

너도.

꽃이야.



강아지 풀

박하준

오요요 오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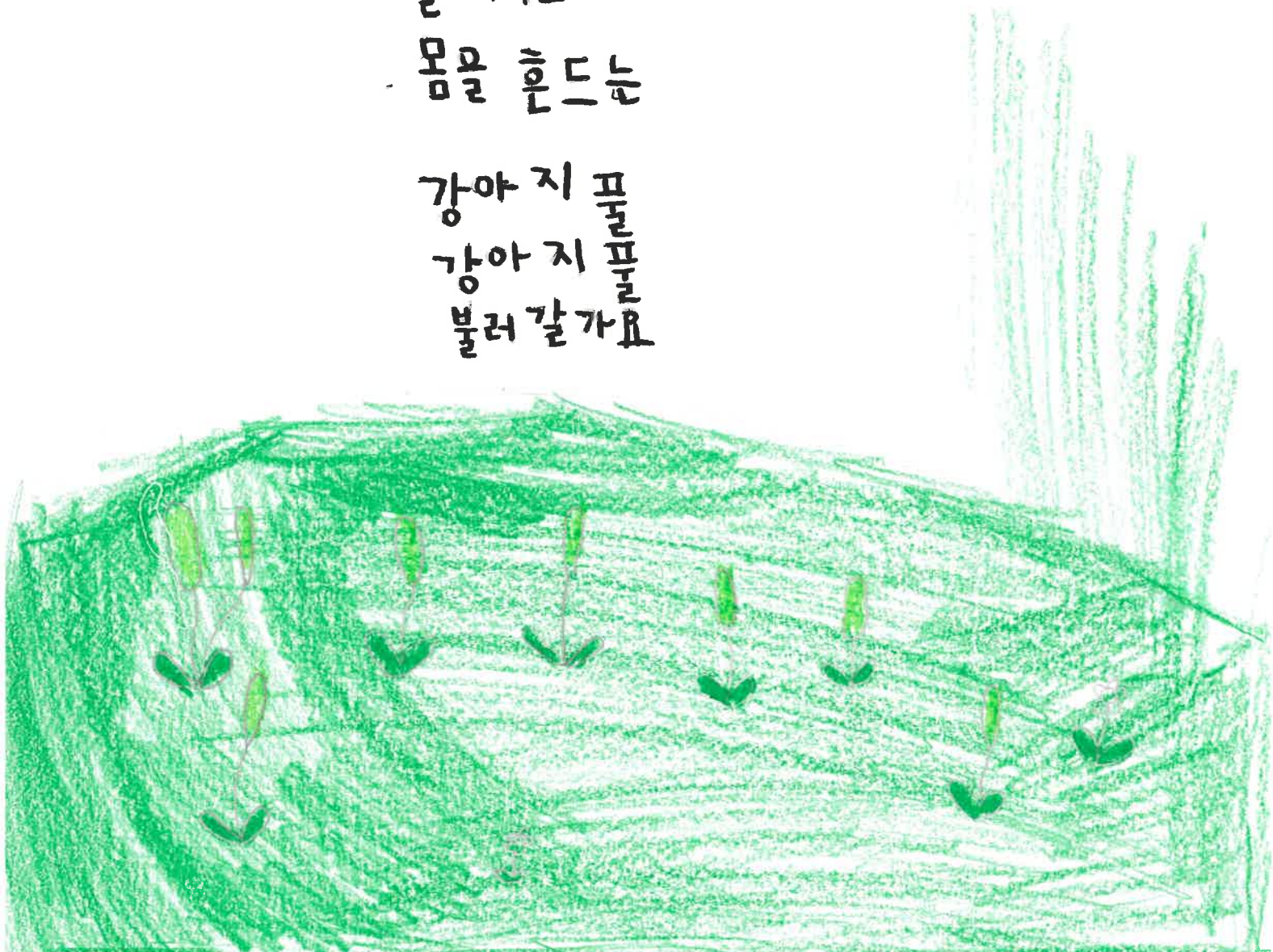
불러 불까요

보송 보송

털세우고

몸을 흔드는

강아지 풀
강아지 풀
불러 갈까요



백화점

서연우

백화점에 가니
뒤바껴 버린 나의 삶
어떤걸 보면 다 사달라고
계속 조르고

백화점을 가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백화점에 가는 삶
이젠 댜 가고 싶지 않다.



강아지풀



신윤서

오요요
오요요
볼아볼까요.

보송보송
털 세우고
몸을 흔드는

강아지풀
강아지풀
볼러볼까요.



공포의 밤 아쓰기

유주호

공포의 밤 아쓰기
심장이저저렁저렁

이스현

다 음 네 쿵 쿵 쿵 쿵

들 리 가 보 두 근 두 근
병 접 맞 으 면 어 렵 하 지
불 안 로 쿵 쿵 이 생 각 하 자
시 험 이 끝 난 뒤
차 음 에 천 천 천 천
어 다 한 데 한 나 가 보
다 리 가 부 들 뚝 들





종이 비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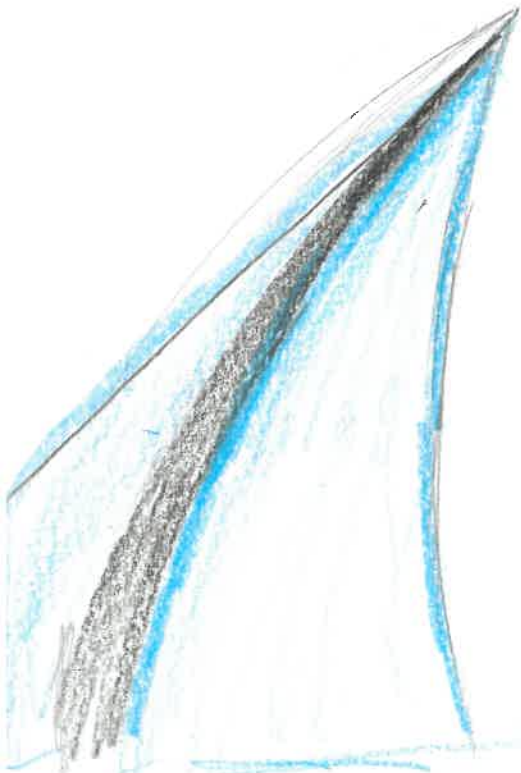
이산

나하구, 분이하구
못 쓰는 종으로
비행기를 접는다.



우리 우리 비행기는
푸릉 푸릉 ~ 날 너감
테 지
그리고

하늘나라 별 이야기를
태우고 올테지



꽃 앞

이아영

꽃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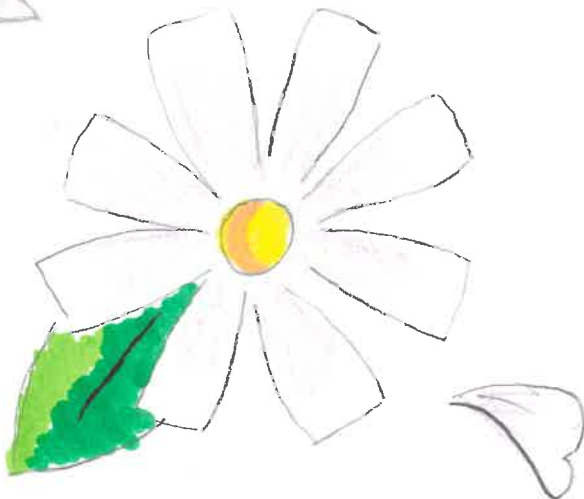
하나하나 모여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듯

우리도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밤 먹을 때 생각 나는 것



밤 먹을 때 생각 나는 것

같이 먹었어

후라이 빵 튀김

선생님에다 뽕

먹는 카레라이스

지렁이 스파게티

맛있게 다 냐냐

후식으로

나 쿠키 반나



무지개 종 바람종

지나가던 소나기가

높고 간다리

아롱아롱일곱색이
곱기도 하다.

어느누굴건너라?

하늘나라 선녀들오 건네려

을까? 아냐아냐, 선녀 전방,
다함아냐

선비들이꿈게꿈 거짜

노비나어



강아지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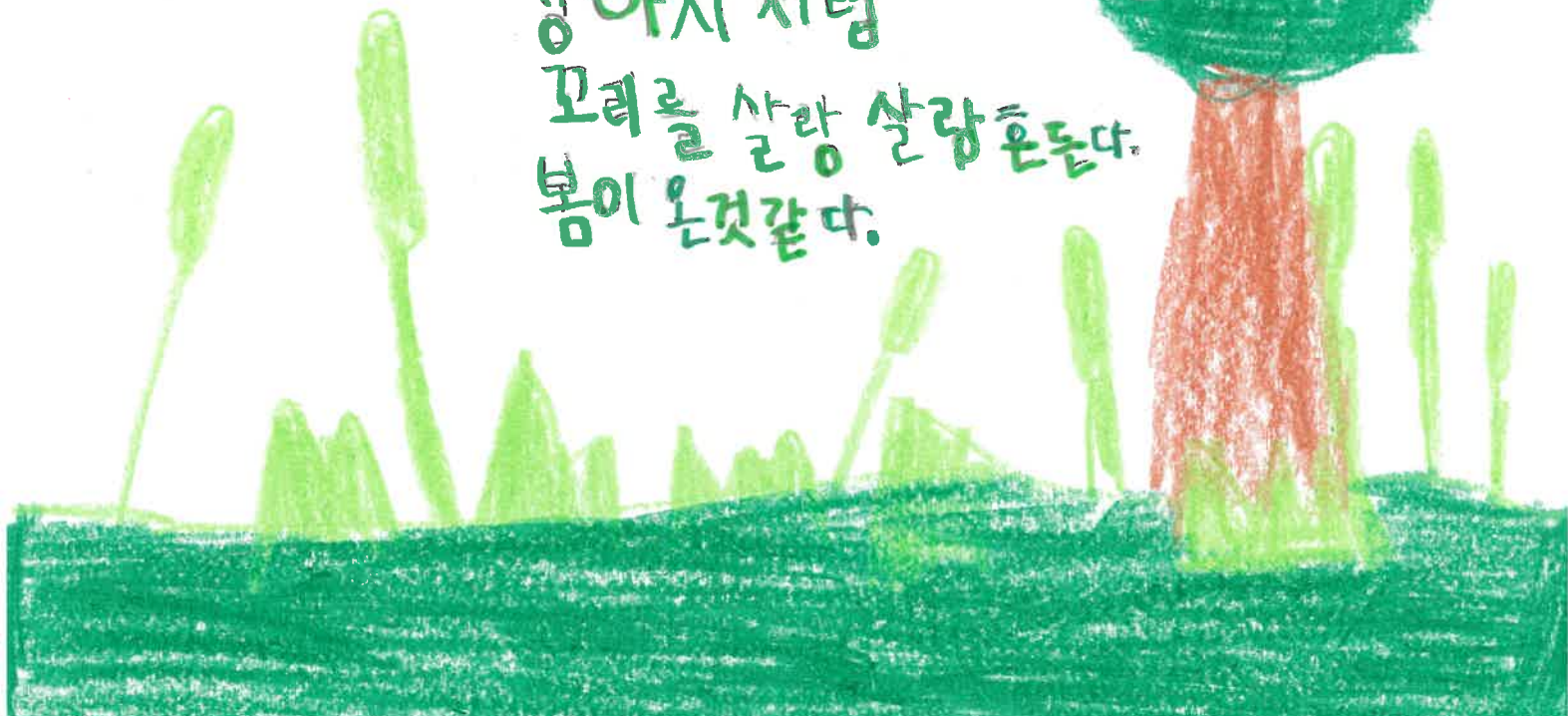
글 안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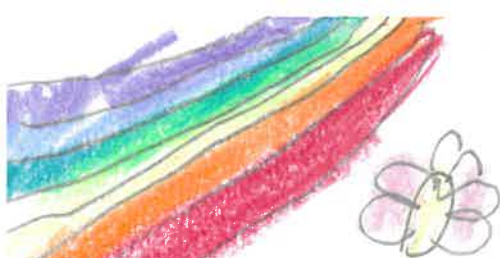
그림 정우

보들부들
살랑살랑

봄바람에 흔들리는
강아지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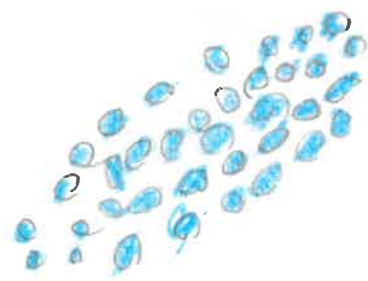
강아지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
봄이 온것같다.





파레트

-함상위-



가뭄이 올적 하 다며

희색 빛 한 조각을

살며시 꺼내 들어보

바운 햇살 에

마음 까지 ~~완~~해질 다며

당연히

알록 달록 충전 연색 이겨

마음 다는 대로

손가는 대로

너의 마음을 표현 해봐





개학 첫날

홍민혁

줄며 마친 숙제

집에 두고 와서 벌받았다

실내화 안가져와서

화장실 청소했다

새똥 맞은 개미처럼

지수없는 날이다

우산도 놓고 가서

엄마에게 꾸중들었다

개학 첫날 부터

온 세상이 굴뚝같음

